주말 인터뷰 | 대한항공 스포츠단 과장으로 다시 뛰는 '코트 전설' 신영수

"새벽 지하철 출근·막차 퇴근…선수때보다 더 바빠"

송파서 발산동까지 매일 지하철 출근
14년 프로배구선수 생활 마치고 새 인생
첫 전화 응대·문서작성, 난 사회초년생
배구 꿈나무 교실 통해 사회공헌 활동
배구교실 성공땐 인천 전체로 확대할 것

대한항공 스포츠단 사무국 신영수 과장은 2005시즌부터 2017~2018시즌까지 대한항공의 공격을 책임졌다. 은퇴 후 운동복 대신 양복과 구두를 갖춰 입은 직장인으로 다시 태어난 그는 현역 시절 경험을 살려 배구 꿈나무를 가르치는 일도 맡았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것이다.

현역에서 은퇴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깐 것이다. 매일 6시에 지하철을 타고 서울 송파에서 발산동의 구단 사무실까지 출근하고 있다. 오전 8시 30분이 회사의 공식 출근 시간이지만 이른 아침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지하철로 직장까지 출근하는 새 기쁨을 알았다. 간혹 회사일로 늦거나 동료 혹은 일과 관계되는 사람들과의 저녁자리에 참석하느라 막차시간 즈음에 귀가할 때도 있다. 그 때 필요했던 것이 지하철 애플리케이션이었다. 이제 몇몇 지하철역의 막차시간은 머릿속에 입력됐다.

●선수와 2번의 죽음, 첫 죽음을 받아들인 선수 신영수

대한항공 신영수는 2018년 6월 30일을 끝으로 14년간의 프로배구 선수생활을 마치고 은퇴했다. 2005년 실시된 V리그 첫 신인드래프트 1순위 출신으로 대한항공 점보스의 우승과 좌절을 모두 경험한 뒤 내린 결정이다. 통산 342경기 출전, 3323득점의 기록은 대전중앙고 시절부터 특급선수로 큰 기대를 받아왔던 신영수가 자랑스러워하는 훈장이다. 다행히 선수생활 마지막 해에 팀은 첫 우승을 했다. 비록 주전으로 큰 활약을 하지는 못했지만 우승멤버의 한사람으로 뛰었다는 사실은 은퇴결정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선수는 2번 죽는다. 첫 죽음은 화려했던 선수생활을 마치고 은퇴할 때 찾아온다. 예측은 가능하다. 팬들은 당분간 그의 이름을 기억하겠지만 차츰 그들로부터 잊혀질 것이다. 모두에게 서서히 잊혀진다는 것. 그래서 죽음이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하늘의 부름이다.

첫 번째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인 그는 '대한항공 스포츠단 사무국 신영수 과장'이라는 새로운 명함을 받고 다시 태어났다. 저지와 운동화 대신 양복과 구두가 새로운 유니폼이다. 직장생활 석 달 남짓, 그는 직장인의 애환을 차츰 이해하고 조금씩 경험하고 있다. 아내는 "선수를 그만두겠다"는 남편의 말에 쿨하게 반응했다. "이제 주사 안 맞아도 되겠네"라고 했다. 웨이트트레이닝을 하면 대한항공 선수단 가운데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자신도 있지만 잦은 허리부상으로 몸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은퇴 전의 마음, 은퇴 이후의 현실생활

겉으로 드러내놓지는 않았지만 1년 전부터 은퇴가 다가왔음을 스스로 알았다. 하지만 선수의 마음은 간사하다. 자기 스스로도 더 이상 선수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지만 단 1%의 가능성에 무모하리만큼 매달리는 것이 선수의 마음이다. 신영수도 그랬다. 스스로 은퇴를 염두에 두면서도 막상 "이제 프런트에서 일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의에 즉답을 주지 않았다. 아내의 찬성과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오래 고민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다른 선택의 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프로선수들은 일반인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많은 연봉을 받는다.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지만 사람들은 많은 액수만 기억한다. 그래서인지 그에게 갖는 호기심 가운데 하나가 선수시절과 직장인시절 연봉의 차이다.

신영수 과장도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선수시절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놀랐다. 하필이면 그 달은 대한항공 직원들의 월급봉투가 가장 가벼운 달이기는 했다. 그보다 먼저 은퇴하고 자리잡은 대한항공 출신 선배들은 신영수에게 "살만큼 충분하게 나온다. 걱정하지마라"고 조언했다.

7월 1일 구단사무실에 양복을 입고 정식으로 출근하기 전에 그는 엑셀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스스로 공부했다. 그 덕분에 기본적인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스스로 엑셀과 문서작성을 한다. 물론 그보다 오래 직장생활을 경험한 프런트 직원에 비하면 스피드도 떨어지고 보고문서 내용도 어색한 부분이 많은 것을 잘 안다. 적응하려고 하지만 아직은 회사생활이 여전히 낯설다. 사무실에 전화가 오면 우선 긴장부터 한다.

어떻게 전화응대를 해야 하는지, 다른 부서로 온 전화를 돌려받는 것도 모른다. 나이 36살에 사회 초년생으로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새삼 느낀다. 그동안 선수단 버스만 타고 생활해온 터라 고등학생이 된 이후 아직 서울에서 버스를 타본 경험도 없다. 아내에게 가장 먼저 물어본 것도 서울에서 버스를 타는 법이었다. 아내는 간혹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회사에서 초짜 직원을 늦도록 데리고 다니는 것도 배려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잘 배우고 감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디자이너인 아내는 신영수 보다 직장인의 애환을 먼저 경험해왔고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남편의 변신과 선택을 응원하고 있다.

●대한항공 리틀점보스와 신영수 총감독의 비전

큰 덩치 덕분에 11살에 배구를 시작했던 신영수 과장은 여전히 배구와 함께 한다. 선수는 아니지만 새로운 직장에서 맡은 일이 배구 꿈나무를 육성하는 일이다. 대한항공은 최근 야심찬 일을 시작했다. 인천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배구 꿈나무 교실을 열었다. 150여명의 초등학생이 학년별로 가입해 매주 토요일 인하대 체육관에서 배구를 배운다. 신영수 과장은 꿈나무 교실(대한항공 리틀점보스클럽)의 총감독으로서 어린이들이 배구를 즐겁게 배우고 이를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게 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큰 방향을 잡는 역할이다.

다행히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았다. 아이들이 너무나 즐거워하고 다음 시간을 기다린다는 소문이 즉시 퍼졌다. "우리 아이도 참가 시켜달라"는 많은 요청이 밀려들 정도다. 신영수 총 감독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짜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주말을 즐기고 기대하게 만들어야 한다.

대한항공이 이처럼 유소년배구 사업에 많은 돈과 고급인력을 투자한 것은 KOVO 총재사로서의 책임과 조원태 총재가 취임식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긴 호흡의 투자를 통해 지역 어린이들이 배구를 자주 접하고 이를 통해 배구와 더욱 가까워지고 간혹 운동신경 좋은 아이가 배구 유망주로 자라주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시작했다.

신영수 총 감독은 유투브를 보며 다양한 지도방식과 도구를 이용한 훈련 노하우를 찾아낸 뒤 아이들에게 배구기술을 가르친다. 주말마다 현장지도자들과 함께 등급별로 다양한 배구교실에 참가하고 쉴 때는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통해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는다. SNS에 개설한 리틀점보스 모임방에는 신영수 총감독이 학부모를 위해 자주 글도 올린다.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교육을 받고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알린다. 반대로 학부모들도 원하는 사항을 자유롭게 올린다. 이런 상호소통의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배구를 더 즐기고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도록 만들고 있다.

신영수 과장에게 이 프로젝트를 제안했던 박진성 사무국장은 "배구교실이 성공하면 인천 전체로 확대시키고 참가 선수들의 연령대도 다양화시킬 생각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균일화와 성공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정착되면 이 것을 바탕으로 여러 곳으로 전파시킬 생각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렇게 되면 은퇴한 많은 프로배구 선수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도 생긴다. 이를 위해서는 신영수 총감독이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계속 지켜보는데 잘하고 있다"고 했다.

어쩌면 신영수 과장은 훗날 우리 배구역사가 기억할 중요한 변화의 시발점에 뛰어든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프로팀이나 대학에서 지도자를 한다면 여러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남겠지만 유소년은 내가 최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스포츠토토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야구 기록실 〈26일〉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타율	방어율	홈승률	득점	실점	홈런	도루	실책
1	두산	133	87	46	0	0.654	-	2승	0.309	5.06	0.719	876	704	180	86	70
2	SK	132	73	58	1	0.557	13.0	2승	0.282	4.58	0.609	760	658	213	92	107
3	한화	134	72	62	0	0.537	15.5	1승	0.276	4.87	0.582	673	700	139	112	92
4	넥센	137	71	66	0	0.518	18.0	2패	0.288	5.01	0.500	776	734	153	100	101
5	KIA	129	63	66	0	0.488	22.0	1패	0.299	5.42	0.600	791	736	155	82	79
6	LG	136	64	71	1	0.474	24.0	2패	0.294	5.37	0.552	749	780	143	70	95
7	삼성	136	63	70	3	0.474	24.0	1패	0.285	5.23	0.453	710	760	130	107	77
8	롯데	128	58	68	2	0.460	25.5	2승	0.288	5.46	0.478	726	760	176	57	100
9	NC	135	56	78	1	0.418	31.5	2패	0.262	5.36	0.457	623	772	132	79	100
10	KT	132	54	76	2	0.415	31.5	1승	0.275	5.36	0.462	688	768	189	73	94

※ '프로야구 기록실'이 신문제작 시간관계로 일부 게재되지 못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메이저리그 〈27일〉

•아메리칸리그

순위	동부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순위	서부지구	승	패
1	보스턴	107	52	1	클리블랜드	89	69	1	휴스턴	100	58
2	뉴욕Y	97	61	2	미네소타	73	84	2	오클랜드	96	63
3	탬파베이	88	70	3	디트로이트	64	94	3	시애틀	86	72
4	토론토	72	87	4	시카고W	62	96	4	LAA	78	81
5	볼티모어	46	112	5	캔자스시티	56	102	5	텍사스	66	92

•내셔널리그

순위	동부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순위	서부지구	승	패
1	애틀랜타	89	69	1	시카고C	92	66	1	콜로라도	88	70
2	워싱턴	81	78	2	밀워키	92	67	2	LAD	88	71
3	필라델피아	78	80	3	St.루이스	87	72	3	애리조나	81	78
4	뉴욕M	74	84	4	피츠버그	80	77	4	샌프란시스코	73	86
5	마이애미	62	96	5	신시내티	66	93	5	샌디에이고	64	95

•경기결과

보스턴	19 - 3 〈DH1〉	볼티모어	볼티모어	10 - 3 〈DH2〉	보스턴
미네소타	11 - 4	디트로이트	워싱턴	9 - 3	마이애미
캔자스시티	6 - 1	신시내티	애리조나	7 - 2	LAD
탬파베이	8 - 7	뉴욕Y	오클랜드	9 - 3	시애틀
시카고C	7 - 6 〈연장10회〉	피츠버그	샌디에이고	3 - 2	샌프란시스코
뉴욕M	3 - 0	애틀랜타	밀워키	2 - 1	St.루이스
클리블랜드	10 - 2	시카고W	콜로라도	14 - 0	필라델피아
토론토	3 - 1	휴스턴	LAA	3 - 2	텍사스

해외축구 〈27일〉

•프리메라리가

	팀	경기수	승점	승	패	무
1	바르셀로나	6	13	4	1	1
2	레알마드리드	6	13	4	1	1
3	AT마드리드	6	11	3	1	2
4	세비야	6	10	3	2	1
5	알라베스	5	10	3	1	1
6	에스파뇰	6	10	3	2	1
7	셀타비고	6	9	2	1	3
8	비야레알	6	8	2	2	2
9	레알소시에다드	6	8	2	2	2
10	지로나	5	8	2	1	2
11	헤타페	5	7	2	2	1
12	에이바르	6	7	2	3	1
13	빌바오	5	6	1	1	3
14	베티스	5	6	1	1	3
15	발렌시아	6	5	0	1	5
16	레반테	5	4	1	3	1
17	레가네스	6	4	1	4	1
18	라요바예카노	5	4	1	3	1
19	우에스카	6	4	1	4	1
20	바야돌리드	5	3	0	2	3

득점

	선수	팀	득점
①	안드레 실바	세비야	6
②	메시	바르셀로나	5
②	스투아니	지로나	5
②	에스파스	셀타비고	5
⑤	로헤르	레반테	4
⑤	벤제마	레알마드리드	4
⑤	예데	세비야	4
⑧	고메스	알라베스	3
⑧	고메즈	셀타비고	3
⑧	뎀벨레	바르셀로나	3
⑧	모랄레스	레반테	3
⑧	베일	레알마드리드	3
⑧	수아레즈	바르셀로나	3
⑧	알렉스 갈라	우에스카	3
⑧	앙헬	헤타페	3
⑧	엘 자르	레가네스	3
⑧	윌리안 호세	레알소시에다드	3
⑱	그리즈만	AT마드리드	2
⑱	라모스	레알마드리드	2
⑱	무니아인	빌바오	2

•프리메라리가 경기결과

비야레알	3 - 0	빌바오	레가네스	2 - 1	바르셀로나
세비야	3 - 0	레알마드리드	발렌시아	1 - 1	셀타비고

•분데스리가 경기결과

묀헨글라트바흐	3 - 1	프랑크푸르트	도르트문트	7 - 0	뉘른베르크
레버쿠젠	2 - 1	뒤셀도르프	라이프치히	2 - 0	슈투트가르트
마인츠05	0 - 0	볼프스부르크			

경기 예고

프로야구

•2018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28일	롯데 (-)	〈고척〉	넥센 (-)	KIA (-)	〈잠실〉	LG (-)
	오후6시30분, SPOTV2, KNN-R, 부산MBC-R			오후6시30분, KBSN스포츠		
	NC (-)	〈인천〉	SK (-)	두산 (-)	〈대전〉	한화 (-)
	오후6시30분, MBC스포츠플러스, KNN-R			오후6시30분, SBS스포츠, 대전 CMB, 대전방송-R, 대전MBC-R, 대전KBS-R		
	KT (-)	〈대구〉	삼성 (-)			
	오후6시30분, SPOTV, 대구방송-R, 대구MBC-R					
29일	NC	〈고척〉	넥센	LG	〈잠실〉	두산
	오후5시, MBC스포츠플러스, KNN-R			오후5시, SPOTV		
	SK	〈대구〉	삼성	한화	〈광주〉	KIA
	오후5시, SBS스포츠, 대구방송-R			오후5시, KBSN스포츠, 광주 CMB, KBC-R		
	롯데	〈수원〉	KT			
	오후5시, SPOTV2, KNN-R, 부산MBC-R					
30일	NC	〈고척〉	넥센	LG	〈잠실〉	두산
	오후2시, MBC스포츠플러스, KNN-R			오후2시, SPOTV		
	SK	〈대구〉	삼성	한화	〈광주〉	KIA
	오후2시, SBS스포츠, 대구방송-R			오후2시, KBSN스포츠, 광주 CMB, KBC-R		
	롯데	〈수원〉	KT			
	오후2시, SPOTV2, KNN-R, 부산MBC-R					

프로축구

•KEB하나은행 K리그1 2018 〈31라운드〉

29일	수원	〈수원W〉	울산
	오후2시, KBS 1TV		
	제주	〈제주W〉	전남
	오후4시		
	전북	〈전주W〉	강원
	오후4시, SPOTV+		
30일	서울	〈서울W〉	상주
	오후2시, SPOTV+		
	인천	〈인천전용〉	경남
	오후4시, MBC스포츠플러스2, CJ헬로비전 인천		
	포항	〈포항스틸야드〉	대구
	오후4시, SPOTV+		

아마추어 경기예고

금요일 경기 ……〈28일〉

- 농구 ●2018 여자 농구 월드컵(스페인 테네리페)
- 테니스 ●제 3회 배준영배 전국 여자 주니어테니스대회(서울 올림픽테니스장)
- 배드민턴 ●2018 빅터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서울 SK핸드볼경기장,오후2시)
- 탁구 ●2018 ITTF 여자 월드컵(중국 청두)

토요일 경기 ……〈29일〉

- 축구 ●2018 K리그2 •안양-부산(안양종합), 안산-대전(안산와,이상 오후3시), 아산-수원FC(아산이순신,오후7시)
- 농구 ●2018 여자 농구 월드컵(스페인 테네리페)
- 배구 ●2018 세계 여자 배구 선수권대회(일본)
- 양궁 ●2018년 현대 양궁월드컵 파이널대회(터키 삼손)